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2023년도
제2호

사랑의 메⁺아리



교황청 재단



발행 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 ACN KOREA
홈페이지 www.churchinneed.or.kr | 전화 02-796-6440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337호
이메일 info@churchinneed.or.kr | 팩스 02-796-6439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121620
예금주 (사) 고통받는교회돕기한국지부

“여성 수도자는 어머니이신 교회와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표상이며,
교회의 모성과 성모님의 모성을
나타내는 표상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2015년 9월 17일

페루: 하느님의 축복을 비는 마이테 수녀



이번 '사랑의 메아리'에서는 성모 마리아처럼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한 용기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들의 용기, 교회와 세상의 재건을 위한 봉사, 이들의 조용한 기도와 헌신은 대부분 세상의 눈에 띄지 않으며, 안타깝게도 교회 내에서조차 이들의 참된 소명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활에 관한 복음서 기록에 성모 마리아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것처럼, 많은 여성 수도자들 역시 부활 승리의 영광을 경험하거나 대중의 주목도 받지 못합니다. 이들은 세상의 어둠에 참된 빛을 가져오기 위해 십자가의 그늘 안에 머뭅니다. 고통받는 자녀들을 지켜보고 보살피는 어머니의 참된 사랑을 몸소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성 바오로는 서간에서 여성 신앙인들이 지닌 소명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 성령의 작용과 사람을 직접 일컫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조력자, 보호자, 신자와 사제의 후원자, 교회의 봉사자, 많은 이들의 어머니.' 오늘날에도 많은 여성이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은 교회의 사명을 열매 맺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산 희망을 일깨웁니다. 노아 수녀처럼 이들은 성모 마리아를 바라봅니다. 노아 수녀는 레바논에서 이런 글을 보내왔습니다.

“매일 아침, 병원 문 앞에서 있는 환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근심하고 당황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성모 성심에 호소합니다. 제게 경청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조언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말이지요. 저는 섬기고, 기쁨을 주고, 당신 아드님을 신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성모 마리아를 바라봅니다. 성모 마리아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수고를 헌신적인 선물로 바꾸어주시고, 우리의 노력이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교회의 어머니다운 성모 마리아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 각자 부여받은 부활 소명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주님 부활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ACN 지도신부 마틴 마리아 바르타

Fr. Martin Maria Barta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서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눕히고, 사흘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이들은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들에게서 교회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신비가 드러났습니다. 세상을 위한 하느님 구원 계획의 실현에 필요하고 중요한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의 소명이 이 여성들에게서 구현되었습니다. 어머니 없이 자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없이 아드님 예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소명은 오늘날 하느님께 봉헌된 축성 생활의 삶을 사는 여성들에게서 특별한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교회와 사람들 각자가 하느님과 주님 십자가에 온전히 순명한다는 참된 사명을 보여줍니다. 콜카타의 성녀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여성 수도자들은 ‘전문 직업인’이 되고자 수도 서원을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온전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수도 서원을 합니다.”

“이들은 조력자, 보호자, 신자들의 후원자, 교회의 봉사자, 많은 이들의 어머니입니다.”

오랜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룸릿 마을은 인도의 가난한 북동쪽에 자리합니다. 주민 510명 중 약 5분의 1이 가톨릭 신자이며, 그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후원자들이 1,590만원을 기부한 덕분에 마침내 건립된 성당은 큰 축제와 함께 실롱의 대주교에 의해 봉헌되었습니다. 조이 푸릭칼 신부는 이제 본당 공동체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열렬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유스티나 논그룹이라는 노부인은 오늘을 목격하게 되어 기뻐합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최초이자 가장 나이가 많은 가톨릭 신자입니다. 교회는 1983년부터 이곳에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미사를 봉헌할 적당한 장소가 없었어요. 오래전부터 성당이 생기기를 바랐는데, 이제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마을의 첫 가톨릭 신자로서 무척 기쁘고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당 건립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금요일의 수난을 지내고 나면 우리는 늘 부활의 영광을 기뻐하게 됩니다. 이는 교회력에서 가장 큰 축제인 부활 대축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의 삶에서 늘 반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 세상살이의 수고로움과 우리 자신의 부족함에서 구원받았다고 믿고 신뢰해야 마땅합니다.

이런 신뢰는 전 세계 많은 수도 공동체의 삶과 일을 통해 다양한 사례로 나타납니다. 레바논의 참담한 지역 한가운데서 천 명이 넘는 환자들을 수용한 정신병동을 헌신적으로 운영하는 ‘프란치스코 수녀회’를 생각합니다. 시리아에서 정신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학교를 운영하는 ‘예수 성심 수녀회’를

기억합니다. 무료 급식소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콩고 민주 공화국의 ‘부활의 딸 수녀회’도 생각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부활에 대한 확신에서 힘과 인내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수도자들은 과중한 업무 부담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부활 확신을 더욱 굳건하게 합니다.

수도자들이 세상의 시각에서 단순히 사회복지사로만 인식되는 게 아니라, 이런 영적인 힘을 발산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돕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합니다.

ACN 수석대표 토마스 하이네겔던

Dr. Thomas Heine-Geldern



내전 상황에서도 미소 짓는 도미니코 수도회 수도자들



'천사 학교': 양성 교육을 받는 수녀들

카메룬 치명적일 수 있는 고장

엘리자베스 수녀가 보내온 글입니다. “우리 지역의 상황이 무척 나쁩니다. 살해와 납치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무고한 사람들, 심지어 어린이들까지 죽임을 당합니다. 불과 지난주에도 임산부가 빛나간 총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카메룬 서부의 밤부이에 있는 도미니코 수도회 수녀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낡은 자동차가 고장으로 인적이 드문 외진 곳 아무 데서나 멈춰서는 일이 잦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내전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말이지요. 이들에게는 새로운 차량이 시급합니다.

차 고장으로 환자가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하면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도로변에서 꼼짝없이 발이 묶인 수녀들이 폭력적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도 심각한 위험입니다. 2016년부터 이 지역에서는 분리주의자와

중앙정부 사이에 유혈 충돌이 일어나 이미 수천 명이 사망하고 수십만 명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납치의 위험도 상당합니다. 분쟁지역에 있는 맘페 교구에서는 2022년 9월에만 사제 다섯 명, 수녀 한 명, 평신도 세 명이 납치되었습니다.

24명의 도미니코 수도회 수녀들은 ‘정상적인 시절’에는 관상 생활을 합니다. 기도에 전념하고 지역 교회를 위해 제병, 전례복, 양초를 만듭니다. 이곳 수도원에 딸린 손님방은 피정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위태로운 치안 상황으로 인해 피정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수도원은 수많은 난민을 위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녀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한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이들의 도움 요청을 외면할 수 없어서 우리는 3,63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들이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베트남 눈에 보이는 수호천사

4세기에 성 대 바실리우스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모든 신자에게는 생명으로 이끄는 인도자이자 보호자인 천사가 항상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인 우리도 다른 이를 위해 ‘눈에 보이는 수호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 수녀회’ 수녀 420명은 지상의 천사들입니다. 수녀들은 본당 66곳에서 환자들의 물질적, 영적 고통을 희생적으로 돌보고, 집 없이 떠도는 거리 아이들에게는 어머니가 되어주며, 장애 아동들을 헌신적으로 보살피고,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미 유기 서원을 마친 젊은 수녀 90명은 현재 하느님께 영원한 순명을 약속하는 종신 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수녀들이 많은 이들에게 ‘눈에 보이는 수호천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수도자 양성비로 980만원을 후원하고자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피난에도 남아 있는 사람들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에서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며 묻습니다. “이 수도자들은 왜 아직 여기 남아 있나요? 폴란드 출신의 이 수도자들은 왜 안전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걸까요?” 알베르틴 수도회 수도자들은 격전 중인 이곳에 남아 가난한 이들에 대한 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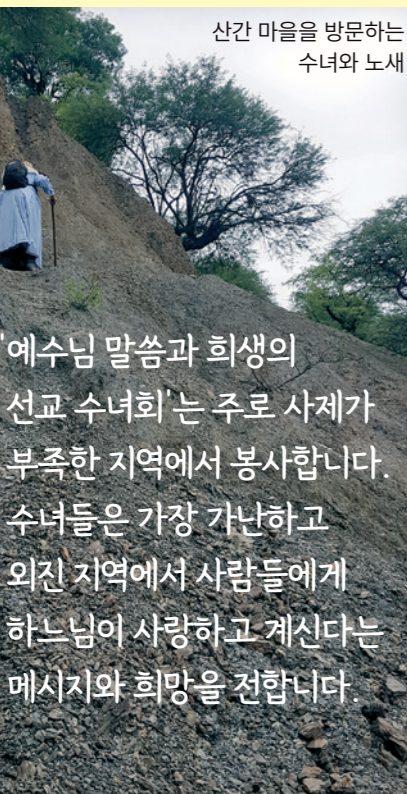
포격 당한 원자력 발전소로 유명해진 우크라이나 남부 대도시 자포리자의 주민 절반 이상이 피난을 갔습니다. 원래 75만 명이던 주민은 현재 30만 명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째 정전이 계속되고, 학교의 90%는 문을 닫았으며, 여전히 도시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공습이 두려워 집 지하실에 대피하고 있습니다.

알베르틴 수도원 부근에도 계속 로켓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에는 바로 인접한 7층짜리 아파트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을 포함해 10여 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수도원에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던 외곽지역도 자주 로켓과 드론 공격에 시달렸습니다.

수도자 네 명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자포리자에 머물면서 노숙자와 극빈자들을 돌보고 빵집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수도자들의 도움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수가 전쟁 전에는 150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1,000명 이상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상당히 오른 데다 일자리마저 거의 없어서 생존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베르틴 수도회 수도자들도 물가상승의 영향을 똑같이 받습니다. 다른 수백 명의 우크라이나 수도자들처럼 이들도 가난한 이들에게 헌신적인 봉사를 계속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생계 지원을 위해 후원금을 보내어 돕고자 합니다. 이들의 용기 있는 봉사에 힘을 보태주시겠습니까?



산간 마을을 방문하는 수녀와 노새

‘예수님 말씀과 희생의 선교 수녀회’는 주로 사제가 부족한 지역에서 봉사합니다. 수녀들은 가장 가난하고 외진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하느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메시지와 희망을 전합니다.



수녀들은 종종 걸어서 또는 노새 등을 타고서 12시간이나 14시간씩 걸려 이동합니다. 수녀들을 친근하게 ‘목동’이라고 부르면서 마을에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수녀들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들을 위로하며 병자영성체를 해 줍니다.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주고, 장례예절과 말씀의 전례를 주관하고, 교리 교육을 제공하며,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실제적인 도움을 줍니다.

수녀들은 오직 하느님 사랑을 위해 봉사하며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수녀들의 소박한 생활에 약간의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에도 500만원을 후원하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볼리비아 우리들의 ‘목동’이 옵니다!

안데스산맥 고원지대에 자리한 볼리비아의 수크레대교구에서는 여섯 수녀가 본당 세 곳의 신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신께 바랍니다. 제 때에 먹이를 주시기를.”(시편 104,27)

추위와 절망을 이겨 내는 따뜻한 수프



조지아
내적 자유

“같은 삶”을 사는 이 수녀들을 무엇이 내적으로 자유롭게 만들까요?
마리아 그라치아 원장 수녀가 젊었을 때 이탈리아 오피다에서 처음 베네딕토 수도회를 접하면서 한 질문입니다. 마리아 그라치아 원장 수녀가 하느님과 함께 하는 삶을 시작하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이탈리아에서 25년 동안 수도자로 지내던 저는 2010년에 다시 한번 인생의 새로운 장을 맞이했어요. 주세페 파소토 주교님이 제게 전화를 걸어와 조지아에 관상 수도원 건립을 도와달라고 요청해왔을 때, 저는 난감함부터 느꼈습니다.”

고대 도시 아할치헤의 역사적 중심지인 라바티에서 이 장소를 찾기란 쉬웠습니다. 이미 13세기에 가톨릭 교회가 설립된 이곳에는 조지아의 소규모 가톨릭 이주민들의 대다수가 모여 삽니다. 폐허가 된 낡은 19세기 교회 마당 주변 황무지에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아서 가톨릭교회가 이 땅을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2012년, ACN의 도움으로 수도원이 봉헌되기까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언어도 어려운 데다 건축 기술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었지요. 지금까지도 정원 일을 하다 보면 뾰조각, 낡은 기도서, 묵주 등 과거의 잔재들이 계속 나옵니다.” 마리아 그라치아 수녀원장의 설명입니다.

파소토 주교는 이 관상 수도원이 이곳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정교회 신자들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줄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매교회인 정교회와의 관계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마리아 그라치아 원장 수녀의 회고입니다. “처음에는 수도원 진입로가 진흙 길이었어요. 이 지역 정교회 주교님이 이

를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일주일 후, 찬미가를 부르고 있는데 수녀원 밖에서 도로공사 차량의 소음이 들려왔어요. 우리에게는 천사의 노래처럼 들렸지요.”

오늘날 이 수녀원은 근처는 물론이고 먼 곳에 사는 가톨릭 신자들에게도 사랑받는 신앙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메달을 주면 신자들은 감동과 기쁨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이들은 소박하고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들이지요. 신자들이 때로 감자를 얼마나 많이 갖다 주는지 다른 이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어야 할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소나 트랙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청해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이들의 일상적인 염려와 근심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지요.”

활달한 베네딕토회 수녀들은 사막에 작은 오아시스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수녀들은 더 많은 성소자를 기도로 청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조지아에서도 대부분의 젊은 가톨릭 여성들은 가정과 직업을 갖고 싶어 하기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마리아 그라치아 원장 수녀는 낙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젊은이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지요.” 그래서 곳곳이 기다리는 이 수녀들을 돕고자 합니다. 우리는 올해 56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전달되는 수녀들의 내면의 광채 - 마리아 그라치아 수녀와 예수의 성모 마리아 수녀

하느님만이 “내 바위, 내 구원, 내 성채”(시편 62,7). 조지아의 라바티에 있는 베네딕토 수도원과 성당



카자흐스탄
인생 학교인 본당

“신앙의 뿌리는 본당에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입니다.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를 경험하게 된 것은 9월의 어느 일요일 아침, 카자흐스탄 쉼켄트에서였습니다.

미사가 시작되기 30분 전부터 성녀 데레사 성당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참석자의 수가 눈에 띄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젊은 본당 공동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일부는 이미 복사복을 갖춰 입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열심히 기도드리느라 푸른 수도복 차림의 수녀님 세 분도 있습니다.

성당은 미사에 참석하려는 사람들로 점점 채워집니다. 슬라브 사람들이 보이고, 카자흐족과 튀르크족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이 본당은 산업도시인 쉼켄트의 민족적 구성을 잘 보여줍니다. 카지노가 많아서 ‘카자흐스탄의 텍사스’라고도 불리는 백만 도시 쉼켄트는 우즈베키스탄 국경과 가까운 고대 실크로드에 우뚝 솟은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미사가 끝난 뒤, ACN 대표로서 우리 두 사람은 몇몇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7세의 다닐은 2년 전에 어머니를 여의고, 할머니의 친구를 통해 본당 공동체에 오게 되었습니다. 다닐의 불행과 방향을 할머니의 친구분이 알아차린 덕분입니다. 이제 다닐은 신실한 복사로서 기꺼이 도움을 줄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거리에서 보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사이에 다닐의 할머니와 사촌까지 미사에 더 자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다닐 자신도 사제의 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4년 전부터 아이다에게도 본당 공동체가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아이다는 미사 중에 독서를 담당하고 성

“너희들 작은 양 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루카 12,32)



기도로 삶의 용기와 힘을 얻는 사람들, 다닐과 아이다

가를 부르며, 미사가 끝나면 친구들과 수녀님들과 배구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아이다의 어머니는 홀로 가족을 부양해야 해서 자녀를 위한 시간을 내기가 힘듭니다.

본당에 어린이들이 많았지만, 온종일 말다툼 한번 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오후 5시에 공동 기도가 끝나면, 아이들은 마지못해 집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쉼켄트에 있는 ‘주님의 종과 마타라의 동정녀 수도회’ 수녀원장인 마리아 슬로바 수녀님의 설명에 따르면, 다닐과 아이다처럼 젊은이들 대부분이 어려운 가정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본당 활동이 있는 날이면 수녀님들의 보살핌과 관심을 더 고맙게 여긴다고 합니다.

청소년기를 벗어난 소녀들은 이곳에서 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옷도 세탁하지요. 아이들이 항상 같은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일선물로 티셔츠를 선물하면 자랑스럽게 입고 다녀요.” 마리아 셴퍼비르고 수녀님의 설명입니다. 미국에서 온 젊고 활달한 이 수녀님은 카자흐스탄에 온 지 몇 주 되지 않았지만, 동료 수녀님들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해 열심히 러시아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키라 폰 보크-이와니우크

15년간 마타라 수녀회는 이곳 본당의 진정한 축복과도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도록 지원합시다. 우리는 올해 기본적인 생계지원과 함께, 수도자들이 피정을 통해 다시 재충전할 수 있도록 비자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느님 사랑과 자비!

작년 늦은 여름, ACN 한국 지부 전임 이사장이셨던 영수정 추기경님께서 로마를 방문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추기경단 회의를 소집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부장 소임과 함께 추기경 비서로서 일하는 저 역시 가게 되었고, 그 기회에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의 피에타 앞에서 저는 추기경님과 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자비”, “슬픔”, “비탄” 등의 의미를 가진 피에타(Pietà)는 그리스도의 시신을 표현한 예술 작품 일체를 말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성모상이 포함되며, 가장 유명한 것이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지요. 신의 예술가라 불릴 만큼의 천재 작가인 미켈란젤로가 평생에 걸쳐 집착한 조각상이기도 합니다. 스물넷의 나이에 완성한 바티칸의 피에타. 일흔다섯의 나이에 완성한 반디니의 피에타. 여든아홉, 죽기 사흘 전까지 다듬다가 미완으로 남긴 론다니니의 피에타. 사람들은 말합니다. 완벽한 피라미드 구도에 그리스 조각상처럼 예수님과 성모님을 묘사한 스물넷의 피에타를. 비애감을 극대화한 일흔다섯의 피에타를. 그리고 여든아홉 죽음의 끝자락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허물며 모호함을 담은 론다니니의 피에타를.

그러나 무엇보다도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보며 성모님께서 죽은 아드님 예수의 몸을 안고 처연하게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를 읊조리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완벽함, 애매함, 모호함 속에 드러나는 이 조각상의 가장

위대함은 ‘자비-불쌍함’입니다. ‘자비-불쌍함’이 특정한 삶의 조건을 누리는 데 필요한 재화나 건강, 명예가 결핍되어서 오는 것이 아님을 형상화했기 때문이지요. 성모 마리아와 아드님 예수의 상황에서 ‘자비-불쌍함’의 본질은 사람들의 배신과 버림받음, 인간과 하느님의 단절을 상징하는 죽음의 고통에 있습니다. 피에타에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느님께 간절히 청하는 일은 인간 실

존의 본질입니다. ‘자비-불쌍함’은 특정한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사람 모두에게, 사람이 이웃 누구에게나 품을 수 있는 근원적 감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자비’입니다. ‘자비-불쌍함’은 신학적으로 언제나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이제 자비의 사랑, 불쌍함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 필요한 때가 된 것입니다. 바로 사순과 부활 시기이지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통받는 교회 돕기(ACN)」 후원자 여러분!

은혜로운 회개의 때이며 ‘구원의 날’인 사순시기를 시작하던 재의 수요일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전통적 재계(齋戒) 방법인 ‘자선’, ‘기도’, ‘단식’을 언급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바로 ‘자선’이지요.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네 자선을 숨겨 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마태6,2-4)

진정한 회개란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과 더불어 선행의 실천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숨은 일’로 선행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박해받는 나이지리아의 그리스도인들과 지진으로 대참사를 겪고 있는 시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자선’, ‘기도’, ‘단식’을 은밀하게, 위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선물 받으신 람보르기니를 ACN에 기부하시면서 다음의 감사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인간의 자비는 하느님의 자비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진정 양심적으로 성찰할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자비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비의 운동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 한 단어만 잊어버리십시오. ‘멈추다!’ 자비는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자비를 멈추지 마십시오.

ACN 한국지부장 박기석 사도요한 신부



교황청 재단 가톨릭 사목원조 기구 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
Aid to the Church in Need

문의 02-796-6440, 010-7475-6440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121620 | 예금주 (사)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